올 여름 '어린이 불심' 증장 나서자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캠프 다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여름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 즐거움 만큼 불심도 자라길 기대한다.

어린이 청소년 위한 불교계 여름 어울림마당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불교계 대표 어린이청소년 단체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장성 백양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를 찾는 선 마음이 행복해요' 여름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처님은 어디에' '숲길에서' '캠핑슬러시' '명상물놀이' '걱정은나에게' 등 캠핑, 물놀이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문화와 접목한 불교수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어 동련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순천 송광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018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300명까지 가능하며 동련 홈페이지(www.dongryun.net)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은 "즐겁고 행복한 여름 불교학교를 지낸 아이들이 한명의 불자로 활동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여름 캠프를 마련했다"며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심산)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대구한의대에서 제21회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지난해 20회를 기해 국제캠프 형식으로 열린 전국연합캠프는 이번에는 전국 청소년 회원 및 지도자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형 캠프로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대구 동화사 참배를 비롯해 대구지역 문화재 답사와 커뮤니케이션 훈련, 공동체 팀빌딩 훈련과 청소년 백일장, 음악놀이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각 사찰들도 여름을 맞아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행사를 연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계사 물만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7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108배와 오금희 명상체조, 소금만다라 명상, 전통차 시연 및 다식만들기 등이 열린다. 특히 수영장이 마련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VR체험과 타투스티커 붙이기 등을 비롯해 풍선아치 포토찍기, 민속놀이 등도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나 그리고 너, 우리'를 주제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홍법사에서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100여 명의 참석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잔디밭 명상을 비롯해 참회 108배, 나에게 편지쓰기 등이 진행된다.

김원중 봉은사 사무관은 "어린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자립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심도 키우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로자나 국제선원(선원장 자우)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간 '천년의 왕국 신라문화여행, 삼국유사 속 경주이야기'를 주제로 '엄마탈출! 청소년 배낭여행!'이 마련된다. 여기서는 팀별로 경주 곳곳을 탐방하며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신라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군종교구, 제18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10일 서울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제18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대재에는 초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지낸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기중 포교사단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김병주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호국영령들께서는 생멸없는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종교구는 6월 25일 오전10시 5군단 호국금강사에서 '한국전쟁 호국위령대재'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스리랑카 거주민 문화행사 개최

6월 24일, 150여명 초청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24일 오후 3시부터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및 이주근로자, 다문화가정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불교문화공연을 마련한다.

이날 불교문화공연에서는 봉은사를 소개하는 사찰안내를 시작으로 거문고 연주와 함께 하는 다도 시연, 국악오케스트라 공연과 민요, 스리랑카 전통춤과 노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스리랑카 음악을 국악으로 연주하고, 스리랑카 가수가 한국노래를 부르는 등 문화공연 교류를 통해 불교국가 간 우호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사찰음식과 스리랑카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리도 마련된다.

봉은사 관계자는 "한국불교와 스리랑카 불교계는 최근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불교국가에서 이주한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들에게 단순한 한국관광문화체험이 아닌, 한국에 잘 적응하고 부처님 법안에서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리랑카 거주민에 대해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도 6월 3일 서울 일대에서 한국전통문화체험을 개최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2018 우수학술도서 불교학술서 7종 선정

교육부 · 학술원 11일 결과 발표… 대학도서관 등 보급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이 선정한 '2018년 우수학술도서'에 불교관련 학술서가 7종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대한민국 학술원은 "2018년 우수학술도서에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78종 등 총 285종이 선정됐다"고 6월 11일 밝혔다.

불교 관련 학술서로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의 〈원효의 화쟁철학〉 △김종수 충북대 우암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 △서본조진의 〈삼계교 연구〉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이성도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 교수의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 △마크 엡스타인의 〈붓다와 프로이트:붓다의 가르침과 서구심리치료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찰〉 총7종이다.

〈원효의 화쟁철학〉은 화쟁의 논리적 구성과 이해, 현 시대에서 화쟁의 구현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은 조선 유학자 6인의 삶 안에서 어떻게 불교와 교섭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은 문헌학, 역사학, 철학을 통해 근대 공간 안에서 중국 불교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추적하며, 한국 마애불의 역사를 양식사가 아닌 미학으로 분석한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은 출간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역서(譯書)인 3종도 눈길을 끈다. 2011년 작고한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은 중국 선불교의 중요 종파 중의 하나였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삼계교 연구〉는 수당시대에 나타나 400여 년간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삼계교에 대해 상세히 밝힌 역작이며, 〈붓다와 프로이트〉는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접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학술서이다.

이번에 선정된 285종의 우수학술도서는 올해 11월까지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된다. 규모는 총 13만 권 내외며, 구입예산으로는 36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급한 우수학술도서는 대학에서 교수, 학생 등의 연구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 연구저변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죽음 살피는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불교상담개발원, 7월 7일 금선사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7월 7~8일 1박 2일간 서울 금선사서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를 주제로 자살예방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불교계가 함께 진행하는 '서울시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친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나를 깨우는 108배, 조별 집단상담, 명상 등이 진행된다.

템플스테이는 자살 위험군,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및 우울증 증세를 겪은 이, 자살예방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이면 신청가능하다. 통담아카데미아 평생교육원장 선업스님, 모의희 모희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노경이 우리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가비 무료로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jabi7378@naver.com) 또는 팩스(02-737-880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0일까지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노덕현 기자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